

새해 안녕 · 희망 기원 ‘전주 제야축제’

31일 오후 7시부터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서 개최... 올 한해 결산 내용 구성 · 다양한 부대행사 마련

다사다난했던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 새해의 안녕과 희망을 기원하는 ‘2023 전주 제야축제’가 오는 31일 오후 7시부터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열린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번 제야축제는 △2023년 전주시 행사·축제에서 펼쳐졌던 공연 △전주시 주요 행사 및 추진사업 전시전 △전주 상징물 모음 포토존 등 ‘전주’를 주제로 2023년 한해를 되돌아보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다양한 부대행사도 펼쳐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공연에는 △가수 카더가든 △댄스크루 홀리뱅 △전주시립국악단 △전주한옥마을 싱스트릿’에 참여했던 뮤즈그레인, JAMAN 등의 공연으로 세밀 한파를 녹이고 시민들의 흥을 돋우게 된다.

또한 부대행사로 △문화제야행의 마



다사다난했던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 새해의 안녕과 희망을 기원하는 ‘2023 전주 제야축제’가 오는 31일 오후 7시부터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열린다.

스코트 ‘태조’와 ‘야행이’가 사진을 찍어주는 ‘돌아다니는 포토존’과 △대형 캐릭터와 전주 상징물이 모여있는 ‘포토존’ △밤하늘을 아름다운 불꽃으

로 수놓는 불꽃놀이 △새해를 알리는 제야의 타목 등이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시는 2023 전주 제야축제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사 당일 오후 1시부터 행사 종료 시까지 노송광장 일대 도로의 교통을 통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편안한 행사장 방문을 위해 홈플러스 완산점(5·6·7층)과 전주고등학교,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주요 교통 통제 구간안내를 위한 모범운전자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023년 한해를 전주시와 시민이 함께 되돌아보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이번 제야축제가 많은 시민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 하길 희망한다. 2024년 새해에는 ‘문화와 관광’이라는 발판을 더욱 단단히 하고, 전주의 새로운 경제 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대병원, 전북 최초 TAVI 시술 200례 달성

대동맥판막 삽입술... 2022년 100례 달성 이후 1년 새 추가 100례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심장내과 이상록 교수팀이 전북 의료기관 최초로 가슴 절개 없이 대동맥판막 협착증세의 80대 환자의 태비(TAVI)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200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의 200례 시술 환자는 80대 중반 나이로 재수술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이 교수는 태비(TAVI)를 추천했고 시술 3일 만에 건강하게 퇴원했다.

200례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전북대병원 심장내과 이상록 교수는 지난 2017년 전북 지역 최초로 태비 시술에 성공했으며, 2021년 50례를 기록한 후 1년 만에 50례를 추가 시술, 2022년 100례 달성 이후 1년 새 추가 100례를 성공하여 전북 의료기관 최초로 태비 시술 200례를 달성했다.

TAVI 시술은 가슴을 열지 않고 허벅지 부위 대퇴동맥으로 카테터



(플라스틱관)를 삽입하여 협착된 대동맥판막 부위에 인공 판막을 위치시키는 비수술적 방법이다.

2000년대 초반 처음 개발돼 국내에서는 2010년대 초반에 시행된 TAVI 시술은 시술 시간, 회복기간, 및 입원 기간이 수술에 비해 짧아 빠른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TAVI 시술은 약 3,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나 2022년부터는 환자 부담금이 대폭 줄었다. 특히, 80세 이상이거나 수술 고위험군의 환자일 경우 자기부담금이 5%로 크게 감소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 · 완주 상생협력사업’ 지방자치 우수정책 선정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서 우수상 수상

전주시가 민선8기 출범 이후 중점 추진해 온 전주 · 완주 상생협력 사업이 우수 정책으로 인정받았다.

시는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62담합실에서 열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하반기 정기총회 및 시상식’에서 우수상(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6월 강원 · 대전 · 전북 · 충청 지역 협의회 회원 지방정부 23곳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에서 열린 ‘2023 중부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전주시가 발표한 ‘전주 · 완주 상생협력 사업’이 우수 정책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시가 올해 중점 추진해 온 ‘전주 · 완주 상생협력 사업’은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의 3개 도 · 시 · 군이 함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양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동반성장,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해 공동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8차에 걸쳐 20개의 상생발전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일 생활권인 완주군과의 상생협력이 필수적이다. 앞으로도 완주와 전주 공동의 지역 사회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연계사



전주시는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62담합실에서 열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하반기 정기총회 및 시상식’에서 우수상(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상)을 수상했다.

업을 지속 추진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예수병원, QI활동 경진대회 열려

예수병원은 의료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한 2023년 QI(Quality Improvement) 활동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2023년 QI 활동은 환자안전, 적정성 평가, 고객만족도 향상 등 다양한 주제로 총 16개의 부서에서 진행하였고, 이날은 사전심사를 거쳐 선정된 6개 팀이 구연발표가 진행되었다.

이번 QI 활동 경진대회 시상식은 81병동 ‘표준화된 섬망환자 관리 프로토콜 적용을 통한 섬망간호수행도 향상’이란 주제로 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 진단검사의학과, 우수상 50병동, 의무기록과, 감염관리실, 의료관리팀이 선정되었다.

예수병원 신충식 병원장은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QI활동은 예수병원의 큰 자산이 되기에 앞으로도 발전된 모습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수병원 QI활동 경진대회는 전 직원이 참여해 ‘의료질향상과 환자안전, 고객만족’을 위한 직원들의 경연으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환우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마무리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손경화, 이하 센터)는 올해 전주시영유아 가정의 건강한 양육문화 조성을 돕기 위해 추진한 ‘2023년 전주시 부모대상 공통부모교육’이 총 102회에 걸쳐 1202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센터는 시민들이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양육 지원 프로그램과 더불어 부모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실천하고 있다.

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공통부모교육 ‘집에서도 놀면서 자란다’와 연계해 다양한 육아 관련 온라인 콘텐츠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12월 성탄절을 맞아 교육을 이수한 150가정에는 부모 교육 콘텐츠와 관련된 놀이 키트인 ‘과일케이크 만들기’와 ‘과자집 만들기’를 각 가정에 배부하기도 했다. /김옥기 기자

만성골드클래스 아파트 주민들, 성금 128만원 기탁

만성골드클래스 아파트 주민(대표 이흥재)들이 지난 20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혁신중 주민센터(동장 서세현)에 128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그날 전달된 성금은 아파트 주민들이 이웃돕기를 위해 지난 16일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재능기부로 떡볶이, 꼬치구이, 파전 등 다양한 음식을 판매한 수익금 전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흥재 만성골드클래스 입주자 대표

는 “아파트 주민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랜시간 줄을 지어 음식을 사주셨다. 주변의 생활이 힘든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세현 혁신동장은 “만성골드클래스 주민분들께 깊은 감사와 드리고 주민들의 사랑과 온정이 어려운 이웃의 마음에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박혜숙 전주시의원, 전주시여성기업인협회 감사패 받아



전주시여성기업인협회(회장 유도형)가 지난 22일 전주시의회 박혜숙 의원(송천1동)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주시여성기업인협회는 지난 21일 그랜드힐스턴호텔

에서 열린 노사갈등해소 화합의 장에서 박 의원에게 전주시 여성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했다.

박혜숙 의원은 “지역경제의 도약을 위해 여성기업은 꼭 필요하고 앞으로 도 지역 여성기업의 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풍각

내아